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 95'를 출시한다고 해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대중매체들까지 한동안 법석을 쳤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가운데도 이 새로운 컴퓨터 운용체제를 외면한다면 마치 정보화사회의 '탈락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16메가바이트를 가진 펜티엄을 장착한 기계가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윈도 95'를 사용하자면 대부분의 PC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보강할 것인가 또는 새 기계를 사야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기계를 산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큰 돈(2백

정보화시대의 빛과 그림자

「윈도 95」 출시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까지도 떠들썩하지만 2백만원이 넘는 설치비는 PC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큰 변혁기를 맞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차별없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고대한다.

만원 이상)을 내고 선뜻 새 기계를 살 형편도 못된다면 대신 8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구입하여 힘을 보강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도 보통 PC로 '윈도 95'를 굴리자면 과외로 1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일이 귀찮으면 멀쩡한 기계를 두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새 기계를 들여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윈도 95'의 출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사와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 메이커 그리고 컴퓨터 메이커와 컴퓨터 판매상들은 즐겁게 만들었을 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부담만 안겨 주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형편이 닿지 않으면 '윈도 95'를 사용하지 말면 그만이지 아니겠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류의 발전에서 정보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때 이런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민에 빠진 PC 이용자들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PC)이용자에게는 컴퓨터를 운용하는데 '윈도 95'가 종래의 운영체제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즐거운 것만은 틀림없겠으나 대신 그 대가도 만만치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사측은 386 프로세서와 4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진 기계라면 '윈도 95' 프로그램을 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8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진 486칩은 가져야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

앞선 기술추구에서 뒤져서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45兆원의 장미빛 투자계획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완성되는 2015년경에는 우리나라도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모두 45조원(약 6백억 달러)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이 통신망이 구축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양상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도 몰라 보게 선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장미빛 서린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벌써부터 예견되는 몇가지 걸림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컴퓨터의 이용과 사이버스페이스와의 접근능력이 사회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격차는 결코 국가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정보화사회의 문턱으로 올라선 미국의 사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94년 말 현재 모두 8천5백만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전 가구중 30%가 PC를 갖추고 있으나 그중 대부분은 부유한 중상위층 가정이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교외주택지역의 학교가 도심의 재정이 넉넉치 못한 지역의 학교보다 학생당 컴퓨터 보유수가 2배나 많은 형편이다. 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15% 이상을 더 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다.

美國에도 정보의 차별현상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듯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정보의 '고속도로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이들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버린다.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정보망들을 적어도 당분간은 비교적 가난한 지방은 빗겨나가면서 보다 부유한 지역에 부설한다는 것이다. 미국 매서추세츠주 출신 하원의원 에드 머키의 표현과 같이 미국에서는 오늘날 '정보의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의 옛 인종차별정책을 빗대서 한 말)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까 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서추세츠공대(MIT) 미디어연구소 소장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같은 사람은 학교와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컴퓨터 이용방법이 더욱 쉬워지면 '기술문맹'을 격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에서 컴퓨터 문맹을 없애는데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은 이런 기술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전국 여러 곳의 도서관과 우체국과 그밖의 공공장소에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점을 제공하여 집에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자원단체에서도 지역사회 규모로 '없는 자'들에게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의 유니티드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이름의 기구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의 증여금으로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2백대의 PC를 인보관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이웃 주민들은 혜택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접근하며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시는 은행, 공공센터 그리고 심지어는 식품가게와 같은 장소에 공중접속터미널을 설치하여 공중전자망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집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시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고 시공무원과 이 지방출신 미의회의원과 전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억제나 무주택자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집단에 참여할 수 있다.

빈부차 없는 情報시대

실상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간격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었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라는 일찍이 없었던 큰 변혁기를 앞두고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는 까닭은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누구든지 부담없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고 정보의 빈부격차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기 때문이다. ⑤7